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부지 매각철회”

주민대책위,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가능성 우려

“주거단지·친환경농지 인접, 큰 피해” 중단 촉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공공 용지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매각된 데 대해 주민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산구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해 7월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평동 2차 산단 내 부지를 수의 계약 형태로 팔았다”며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 과정에 단 한 번의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면서 “매매 계약을 맺은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가 사업 신청한 소각 폐기물은 하루 50t 이상이라고 한다. 2019년 기준 평동산단에서 하루 발생 소각용 폐기물량이 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외부 반입 폐기물이 대부분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폐기물 소각 시설이 가동되면, 업체가 하루 100t이든, 200t이든 처리 시설을 증설해 대규모

소각 처리장으로 허가 신청해도 막아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폐기물 소각장 예정부지 반경 5km 이내에는 KTX광주송정역과 도산·송정·동곡·평동, 선운지구 등 주거단지가 있다. 또 시가 추진 중인 평동 준공업지역 주거단지(138만6000㎡·42만 평)와 장록·송촌지구도 인접한다”며 “인구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평동·동곡 농업지역도 위치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지 면적은 150ha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이 가동된다면 수만 명의 광산주민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또한 땅에 떨어질 것이다”면서 “광주시가 이미 폐기 처분한 상무소각장을 평동산단에 옮겨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도시공사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매매 계약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시는 평동산단 인근 지



광주 평동산단 주민단체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평동산단 내 공공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역 개발 청사진을 고려해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광산구 월전동 980번지 일대 3만2396㎡ 면적의 폐기물 시설 용지에 대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령에 따라 마련됐으나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였다. 광산구는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건의했으나,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업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매각은 당초 일반 경쟁방식으로 추진됐으나 3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 계약으로 전환됐다. 매각 당시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선욱 기자

45년 전 이혼한 아내 간병 중 살해 80대, 2심도 징역 8년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8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5일 오후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이혼한 배우자 B(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는 B씨가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겪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B씨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수술을 받고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출 간다고 데리고 가 범행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서 화물차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추돌...10명 경상

전남 신안에서 화물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추돌해 10명이 다쳤다.

4일 오전 8시18분께 신안군 지도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원생 8명 전원과 기사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어린이집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흥비 벌려고’ 청소년 성 착취한 20대 4명 실형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성매매약취·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4)·B(24)·C(22)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D(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1일 사이 10대 청소년 E양을 차량·숙박업소에 감금하고, 3차례에 걸쳐 성 착취를 강요해 E양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무작위(랜덤) 채팅 앱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E양을 만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문신도 해주고, 옷도 사주겠다”며 E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망간 E양의 위치를 알아내 ‘광주 바닥 좀다. 다 잡을 수 있다’며 재차 강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속성 ‘조건 사냥’을 하기로 공모했다. 범행의 경위·방법·수단,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도 ‘수산물 가격하락 주범, 무면허 양식’ 집중 단속

신규 어장 제한에도 양식시설 증가

전남도는 4일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의 증가로 양식수산물에 과잉 생산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8척이 참여하며, 단

속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 전복 양식시설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양식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전북 양식어장은 신규 어장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식시설이 증가해 수급 안정을 위한 불법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

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 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무면허 양식으로 인해 양식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유통질서가 깨지고 있다”며 “준법어업 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어업 행위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서 결빙 도로 미끄러짐 사고 잇따라

밤 사이 전남에서 눈·비가 내리면 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8분께 전남 강진군 읍천면 한 도로를 달리던 3.5t급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탑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노면이 미끄러운 구간에서 난 사고로 보고 중앙선 침범 여

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6시28분께 여수시 울촌면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SUV 등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도로 결빙 구간에서 차량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남 곳곳에는 5mm의 비 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렸다.

김만경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